

정보기술과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김상배
(서울대학교)

〈차례〉

- | | |
|--------------------|---------------------|
| I. 머리말 | IV. 상징적 기술론과 성찰주의 |
| II. 도구적 기술론과 현실주의 | V.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 |
| III. 환경적 기술론과 자유주의 | VI. 맺음말 |

· 주제어: 정보기술, 세계정치, 변화, 국제정치이론, 구성적 기술론, Information Technology, Global Politics, Chang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Constitutive Understanding of Technology

【한글초록】

최근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이 세계정치의 전반에 걸쳐서 미치고 있는 지대한 영향에 대비해서 볼 때, 국제정치이론이 정보기술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침묵은 매우 의아할 정도이다. 이 글은 정보기술과 세계정치 변화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의 침묵이 기존의 이론진영들이 상정하고 있는 기술변수의 위상에 대한 편향적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성찰주의 등으로 대별되는,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 진영이 상정하고 있는 기술론을 각각 도구적 기술론, 환경적 기술론, 상징적 기술론 등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기술론들이 바탕에 깔고 있는 인식론적 편향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제한된 세계정치 변화의 전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이 글은 이익-제도-관념의 세 가지 차원에서 기술변수와 세계정치 변화의 상호구성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성적 기술론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의 일환으로서 기술사회학과 국제정치학 내에서 기술과 제도의 구성적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일련의 연구들에 특별히 주목하였다.

*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조언을 주신 정보세계정치연구회와 IT정치연구회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익명의 세 분 심사자의 코멘트에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I . 머리말

최근 들어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의 발달은 세계정치의 전반적인 변화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IT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선진국간의 기술혁신경쟁이 가속화되고 IT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들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인터넷과 인공위성 및 각종 통신기기의 보급에 따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정보와 지식이 상호 교류됨으로써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상호의존의 미래가 예견되고 있다. 또한 IT의 확산은 전쟁과 외교의 양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하던 이들 영역에 비국가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국제적 무역과 금융의 활동을 사이버공간에까지 확대시키고 시민사회운동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작동해 오던 근대 국제체제의 모습을 질적으로 변형시킬 조짐마저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IT의 발달은 세계정치의 구조와 과정 및 체제의 변화를 야기하는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IT가 변화시키고 있는 세계정치 현실의 현란함에 비해서 세계정치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의 국제정치학, 특히 국제정치이론은 IT에 대해서 매우 의아하게 여겨질 정도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간혹 국제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정책연구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연구들은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져서 해당 분야에서의 정책적 발상을 넘어서 IT가 야기하는 세계정치의 심층적 변화를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¹⁾ 이러한 사정은 국내 학계는 물론이고 세계 학계를 모두 둘러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수십 년간 국제정치이론 분야의 연구가 보여준 방대한 이론적 관심에 대비해 보면, IT와 세계정치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지나칠 정도가 아니다. 특히 IT의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에 대해서 사회학이나 경제학 및 언론정보학 등과 같은 여타 사회과학 분과가 보여주고 있는 왕성한 학적 관심과 비교해 볼 때, 국제정치이론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의구심의 차원을 넘어서 학문적 무책임에 대한 우려마저도 자아낸다.

이러한 국제정치이론의 침묵은 무엇보다도 학문분과로서 국제정치학이 설정해 놓은 학제적 경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기술은 국제정치학적 연구의제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변수로서 취급되어온 감이 없지 않다. 세계정치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여타 학문과 구별되는 국제정치학 고유의 학문적 부가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치변수의 독자성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설령 기술변수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를 다른 학문 분과의 뜻으로 남겨놓으려 했을 것이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국제정치이론의 문현에서 세계정

1) 이러한 경향의 일례로는 미국 버클리대학의 BRIE(Berkeley Roundtable of International Economy)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일련의 작업들을 들 수 있다. Laura D. Tyson, *Who's Bashing Whom?: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Jeffrey A. Hart, *Rival Capitali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Western Europ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치의 변화에 대한 이론구성에 있어서 기술변수의 위상을 명시적으로 설정한 분석틀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IT가 세계정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제는 더 이상 국제정치학이 학제적 경계에 갇혀서 기술을 비(非)국제정치적 문제로서 치부하고 안이하게 뒷전에 물러앉아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국제정치학의 분야에서 기술변수에 관심을 가졌던 이론적 연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²⁾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기술과 세계정치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인식론적 또는 방법론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기존 연구에 있어서 기술은 도구적으로 취급되거나 이미 ‘주어진’ 외재적인 변수로서 설정됨으로 인해서 세계정치의 변화를 설명하는 동태적인 위상을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정태적이고 부차적으로 설정된 기술변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는 현재 IT의 발달로 인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 즉 ‘정보세계정치(the global politics of information)’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정보세계정치의 충분조건으로서 기술변수를 설정하고 이에 모든 설명을 환원하는 기술결정론의 입장은 배격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기술변수가 정보세계정치의 필요조건으로서 차지하는 적절한 위상을 정립하려는 이론적 작업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요컨대, 현재 국제정치이론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과 세계정치를 격리시켜서 보는 이론적 무관심을 넘어서 기술변수를 세계정치 변화의 ‘구성적 요소’³⁾로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분석틀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술변수를 구성적 요소로서 파악하는 국제정치이론적 시도가 간간히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기술과 세계정치의 구성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⁴⁾ 기술변수를 단순한 도구나 외적 환경이 아니라 세계정치

2)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연구 중에서 기술변수에 대해서 예외적인 관심을 보여준 기존의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1977);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Foreign Affairs*, 77(5), (1998), pp.81-94; George Modelska and William R. Thompson,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6); James N. Rosenau,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James N. Rosenau,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3) 이 글에서 ‘구성적(constitutive)’이라는 용어는 보통명사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현재 고유명사로서 자리 잡은 ‘구성주의(constructivist) 국제정치이론’에서의 ‘구성적’이라는 개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는 기술론은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적 기술론’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다소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별다른 언어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문맥 속에서 양자의 ‘구성적’이라는 용어가 구별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4)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국제정치이론 분야의 기존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Robert W.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10(2), (Summer, 1981), pp.126-55; Susan Strange, *States and Markets*, (London and New York: Pinter, 1988). 한편 이러한 구성적 기술론의 관심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최근의 작업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Eugene B. Skolnikoff, *The Elusive Transformation: Science, Technology,*

변화의 구성적 요소로 설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술을 단순히 외재적 변수가 아닌 내재적 변수로서, 더 나아가 결정론이 아닌 구성론의 위상에 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구성적 요소로 놓고 보면 세계정치의 변화를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은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진영들이 상정하고 있는 기술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종합하여, 기술변수의 구성적 역할을 밝혀냄으로써 정보세계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성찰주의(reflectivism) 등으로 대별되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전통이 상정하고 있는 기술론을 도구적 기술론, 환경적 기술론, 상징적 기술론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특히 이 글은 이러한 기술론이 바탕에 깔고 있는 인식론적 편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여기에서 파생되는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구성적 기술론의 모색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으로서 국제정치학과 인접 사회과학에서 기술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구성적 또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원용하였다. 특히 이 글은 기존 연구에 대한 대안적 분석틀로서 이익(interests), 제도(institutions), 관념(ideas) 등 세 가지의 분석차원에 주목하는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익-제도-관념의 삼차원적 구도에서 기술변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해된 기술변수와 세계정치 변화는 어떻게 구성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적으로 밝혀내는 데 두어졌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논의를 종합·요약하고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과 세계정치가 상호구성해가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서는 향후 경험적인 사례연구와 한국적 시각에서 본 이론적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II. 도구적 기술론과 현실주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⁵⁾에서 본 기술은 국가의 이익과 생존의 목표를 달성하기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Geoffrey L. Herrera, *The Mobility of Power: Technology, Diffusion and International System Change*,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95); Geoffrey L. Herrera, "The Politics of Bandwidth: International Politics Implications of a Global Digital Information Network,"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8, (2002), pp.93-122; Michael Talalay, Chris Farrands, and Roger Tooze, (eds.), *Technology, Culture and Competitiveness: Change and the World Political Economy* (London: Routledge, 1997); Ronald J. Deibert,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Ronald J. Deibert, "Hyper-Realities of World Politics: Theorizing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in Evan H. Potter, (ed.), *Cyber-Diplomacy: Managing Foreign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2), pp.27-47; Philip E. Steinberg and Stephen D. McDowell, "Global Communication and the Post-Statism of Cyberspace: A Spatial Constructivist View,"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0(2), (May 2003), pp.196-221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권력개념에 비추어 볼 때, 기술은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 권력자원이다.⁶⁾ 역사적으로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기술을 인식하는 정책담론이 존재해 왔지만, 최근 IT의 등장으로 인해서 기술이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권리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첨단 IT를 바탕으로 제조된 군사무기는 현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IT산업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인적자원의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경제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현실주의적 기술담론은 일반대중에 널리 유포되어서 언론매체에 오르내리는 IT와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이 이러한 부국강병의 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⁷⁾

이렇게 정책차원의 기술담론이 득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작 정교한 이론틀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현실주의 이론은 IT와 세계정치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무엇보다도 현실주의의 인식론적 편향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술변수의 위상설정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팔란(Ronen Palan)⁸⁾에 의하면, 현실주의 이론은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준거틀로서 인체구조를 상정하는 ‘유기체적 은유(organic metaphors)’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자연과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육체와 영혼에 대한 데카르트적 이분법에 근거하여 사회구조에 대한 은유를 상정하고, 이를 국제정치에 투영하여, 현실주의 이론의 두 축인, 영토성(territoriality)과 국가이성(raison d'etat)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이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인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동하듯이, 국가는 국가이성을 소유하고 영토의 물리적 보전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주의의 ‘유기체적 은유’는 국가를 지고의 목표로 보는 이론적 시각을 창출하였고, 여기서 기술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원되는 많은 수단 중의 하나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도구적 기술론에 의거해서 볼 때 기술변화는 국제정치의 본질적 변화를 야기하는 요소가 아니다. 현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기술은 국가의 본질과는 무관한 요인이며, 국제정치의 본질은 기술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를 초월하여 불변한다. 간혹 있을 수 있는 기술적 변용도 인간들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동기나 목표에는 영향을 주

5)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은 국제정치의 지배적 행위자로서 국가가 이익(interests)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상호경쟁하는 무정부상태의 국제정치 이미지를 상정한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주의 전통에 서 있는 이론가들 중에서 모겐소(Hans Morgenthau), 월츠(Kenneth Waltz), 길핀(Robert Gilpin) 등이 상정하고 있는 물질주의적(materialist) 기술론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과 국제정치를 논하고 있는 연구로는 스코니코프(Eugene Skolnikoff), 헤레라(Geoffrey Herrera) 등의 작업을 검토하였다.

6)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Jeffrey A. Hart and Sangbae Kim,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in Jose V. Ciprut (ed.), *Of Fears and Foes: Security and Insecurity in an Evolving Global Political Economy* (Westport, Conn.: Praeger, 2000), pp.35-58

7)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정책담론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1993)

8) Ronen Palan, “Technological Metaphors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Michael Talalay, et al, (eds.), *Technology, Culture and Competitiveness*. pp.15-8

지 못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인식론이 기본적인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이 기술변수의 세계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실주의자들의 눈에 기술변화는 기껏해야 국가가 활용하는 권력적 도구의 변화 정도로만 비쳤던 것이다.

이러한 기술변수에 대한 냉담은 신현실주의 이론이 설명하는 국제체제의 구조변화에서 기술변수가 차지하는 미미한 역할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신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국제체제의 구조변화는 권력분포의 변화나 패권국의 변경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다만 ‘환경적 요소’일 뿐이다. 신현실주의 모델에서 기술변화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들 요소는 체제 내적인 변수가 아니라 체제 외적(extra-systemic) 변수이다. 다시 말해, 기술변화는 체제의 단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현상적인 변화’일 뿐이다. 따라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이러한 종류의 현상적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부재하다. 국제체제의 본질은 환경적 변화와는 상관없이 불변인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⁹⁾

간혹 기술발달에 따른 국제정치의 변화를 논하더라도 신현실주의 시각의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스코니코프(Eugene Skolnikoff)¹⁰⁾에 의하면, 기술변화로 인해서 국민국가체제의 근본은 세간에서 떠들썩하게 떠드는 것처럼 변화하지는 않았으며 짧은 시일 내에 변할 것 같지도 않다고 한다. 다시 말해 기술발달이 국가단위를 상정하는 국민국가체제의 기본전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획기적인 기술변화가 국가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국제정치의 과정(process) 차원에서 변화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간의 권력분포가 변화하거나 국가의 권위와 능력이 다소간 침식될 가능성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스코니코프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 궁극적으로 현실주의적인 것은, 이러한 기술변화로 인해서 근대 국제정치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그 자율성과 권위에 대한 도전세력에 저항하면서 일련의 적응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그의 인식에서 발견된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기술론에서 파생되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매우 제한적이고 다소 과편적이기까지 하다. 무엇보다도 현실주의 전통은 국제체제의 구조차원이 아닌 과정차원에서 기술의 발달이 야기하는 변화의 포착에 둔감하다. 그런데 실제현실을 보면, 이러한 과정차원의 변화는 국제정치 행위자들간 권력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 패권구조의 변화를 유발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또한 현실주의 전통은 이러한 과정차원의 변화가 국제체제의 질적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둔감하다. 인식론적으로 제한된 지평에서 형성된 도구적 기술론의 레이더에 기술변화가 세계정치의 게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잡힐 리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실주의적 기술론이 상정하고 있

9)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p.143; G. Herrera, *The Mobility of Power*, pp.32-3.

10) E.B. Skolnikoff, *The Elusive Transformation*. 스코니코프는 여타 현실주의 이론가들의 기술론과는 달리 기술을 국제정치의 구성적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현실주의적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는 인식론적 편향은 국가간(inter-national) 관계를 넘어서, 기술변화가 야기하는 세계정치 변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고 있다.¹¹⁾

III. 환경적 기술론과 자유주의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¹²⁾에서 본 기술은 세계정치에서 새로운 제도환경을 창출하는 과정 차원의 주요 동력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IT는 ‘무경계의 세계(borderless world)’를 여는 초국가적 동력의 대명사이다. 현실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술관은 정부정책, 언론매체, 학술논문 등에 널리 배어 있는 정책담론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책담론은 1990년대 이후 부쩍 많이 등장하였는데, 전 미국 부통령인 고어(Al Gore)가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전파의 선구자로서 인터넷과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를 주창한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또한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의 세계를 묘사하며 ‘역사의 종언’ 테제를 내세우는 배경에 깔려 있는 신자유주의적 기술론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후쿠야마가 그리고 있는 세계에서 IT는 ‘역사의 종언’을 향한 변화의 초국가적 동력이며,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신자유주의 및 평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매개체이다.¹³⁾

이러한 자유주의의 기술론은 자유주의이론 전통의 인식론적 특징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괄란에 의하면, 현실주의가 ‘유기체적 은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자유주의는 ‘체계(systems)의 은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주의자들의 눈에 비친 사회는 자연공동체(natural communities)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형성된 인위적 실체(artificial entities)로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사회는 정치체계·국가·법 등과 같은 인위적 실체들을 통해서 결합되는 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체계는 내부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이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적응하는 과정을 밟아 나간다. 이러한 ‘체계의 은유’에서 기술은 독자적인 속성을 띠고 있는 독립체가 아니며, 체계의 부분 또는 전체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인식론에서 파생되는 기술의 개념은 체계의 ‘환경적 요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환경적 기술론은 코헤인(Robert Keohane)과 나이(Joseph Nye, Jr.)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이라는 개념의 형태로 국제정치학적 논의의 장에 떠올랐다.¹⁵⁾ 코헤인과 나이

11) R.J. Deibert, “Hyper-Realities of World Politics,” pp.30-1

12)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국가 이외에도 비국가 행위자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다원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협력함으로써 창출되는 협력과 제도형성의 국제정치 이미지를 상정한다. 이 글은 이러한 자유주의 전통 내에서도 코헤인(Robert Keohane)과 나이(Joseph Nye)의 상호의존론이 제기하고 있는 제도주의적(institutionalist) 기술론에 주목하였다. 이밖에도 로즈나우(James Rosenau)의 탈국제정치론(post-internationalism) 또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검토하였다.

13)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London: Penguin, 1992)

14) R. Palan, “Technological Metaphors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p.18-20.

에 의하면, 세계정치는 상호의존의 중대라고 하는 외부적 동력에 의해서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그들이 상호의존이라고 개념화한 것은 다름 아닌 커뮤니케이션, 교통, 기술 등의 발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호의존은 세계정치의 변화를 야기하는 환경적 요소이다. 그런데 코헤인과 나이는 이러한 세계정치의 환경적 요소를 단순히 기술변화라는 중립적 용어로 부르지 않고, 상호의존의 중대라는 다소 가치개입적인 개념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술론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유주의 전통은 세계정치 변화의 요소로서 과정 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원적 변인들을 상정하고 있는데, 기술은 이러한 다원적 변인 중의 하나이다. 물론 기술은 그러한 다원적 변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독립변수로서 인식된다.¹⁶⁾ 이러한 구도에서 소위 “IT가 …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식의 도식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자유주의적 기술론은 기술과 변화에 대한 낙관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술변화는 곧 인류의 보편적 진보와 연결된다. 기술변화를 상호의존의 중대와 등치시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예를 들어, IT는 커뮤니케이션의 양과 질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간 또는 개인간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동력으로 인식된다. 끝으로, 자유주의적 인식에서 기술은 국제 정치의 행위자들이 적응해야만 하는 특정한 형태의 제도환경을 창출한다. 예를 들어, IT의 도입은 탈집중, 협력, 평화, 투명성 등으로 대변되는 제도환경을 창출함으로서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개방·개혁의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이론 전통의 환경적 기술론에서 파생되는 세계정치의 권력관은 구조적 권력, 즉 주어진 제도나 구조적 환경을 경유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¹⁷⁾ 특히 IT의 등장은 국가간의 관계에서 연성권력(soft power)¹⁸⁾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규칙형성의 과정을 통해서 권력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상호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려 놓았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술론과 권력론에서 파생되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국제적 협력을 증대시키는 상호의존의 환경에 부합하는 모습과 함께 권력의 지배양식이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형태를 바꾸어 작동하는 모습을 동시에 갖는다. 한편, 이러한 과정은 국가의 주권적 통제가 약화되는 현상과 맞물리면서 진행될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이나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 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부상하는 현상을 촉진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탈집중 관리양식의 형태로 권력의 작동과 세계질서의 구조가 재편되는,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가능성을 연다.¹⁹⁾

15) R.O. Keohane and J.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16) J.N. Rosenau,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pp.15-17

17) J.A. Hart and S. Kim,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18)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19) Susan Strange,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James N. Rosenau,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1995).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기술론이 지니는 한계는 여전히 기술변수를 세계정치의 내재적인 요소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변수 자체는 여전히 체제의 외생적 요인으로 학문적 관심영역의 바깥에 존재하며, 다만 이러한 기술이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만이 국제정치학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정치의 변화를 야기하는 과정적 변화로서 기술변화가 어떻게 발생하고,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제도환경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인과적 또는 구성적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자유주의적 기술론에서 찾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²⁰⁾ 그러나 기술과 세계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것은 다분히 기술결정론적 오류를 범할 우려마저 있다. 결국 기술과 세계정치의 구성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도구’ 또는 ‘중립적인 환경’의 의미를 넘어서 세계정치의 변화를 야기하는 동태적인 요소로서의 기술의 성격을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IV. 상징적 기술론과 성찰주의

성찰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²¹⁾은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기술론이 내포하고 있는 인식론적 편향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러한 편향은 애슐리(Richard Ashley)가 ‘기술합리성(technical rationality)’이라고 부르는 것이다.²²⁾ 애슐리에 따르면, 주류이론 진영은 기술을 인공품(artefact)으로 개념화하기 때문에 인공품으로서의 기술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정치 경제의 구조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경시하고 있다고 한다. 주류이론에 비친 기술변화는 ‘기술적 가능성(technological possibility)’의 논리만을 따라서 진행되는 ‘자동적 현상’이며, 이는 기술합리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보의 과정으로서 정당화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상은 기술이 세계정치를 합리화하는 초국가적 동력의 역할을 한다면, 문화는 국가라는 경계에 갇힌 정태적인 것으로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낳는다.²³⁾ 성찰주의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류이론의 이분법적 사고는 문화와 상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정치의 본질을 간과하는 오류를 낳는다고 한다.

성찰주의자들의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인간이 ‘상징의 제국(the kingdom of signs)’에서 살고

20) M. Talalay, et al. (eds.), *Technology, Culture and Competitiveness*, p.3

21) 성찰주의 국제정치이론 진영은 주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실증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탈근대주의, 폐미니즘, 규범이론, 비판이론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글은 인식론적·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이익(interests)과 제도(institutions)의 실증적 분석을 넘어서 관념(ideas) 변수에 대한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는 관념형성주의적(ideationalist) 기술론에 주목하였다. 이 글은 성찰주의의 기술관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애슐리(Richard Ashley), 데어 데리안(James Der Derian), 팔란(Ronen Palan), 영(Gillian Youngs) 등에 주목하였다.

22) Richard K. Ashley, “Three Modes of Econom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7, (June, 1983), pp.463-96

23) Gillian Youngs, “Culture and the Technological Imperative: Missing Dimensions,” in Michael Talalay, et al. (eds.), *Technology, Culture and Competitiveness*, pp.32-5

있다는 인식론적 은유를 바탕에 깔고 있다.²⁴⁾ 이러한 ‘상징적(symbolic) 은유’에 의하면, 인간은 ‘사물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상(representations)들이 구성하는 상징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징의 세계는 사물과 인식(cognition)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구성된 세계(constructed world)’로서 이렇게 구성된 세계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적 경계는 없고, ‘상상의 경계’ 또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²⁵⁾ 만이 있을 뿐이다. 성찰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상상의 경계’일 뿐이며 그 자체가 ‘물리적 실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징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정치는 본질적으로 상징의 교환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은 문화적 상징의 교환을 매개하는 내적 요소이며, 동시에 그러한 문화적 상징의 외적 발현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상징적 기술론이 상정하는 기술은 객관과 주관의 이분법적 대립형을 넘어서 존재하는 간(間)주관적(inter-subjective) 요소로서 인류사를 ‘형성’하는 동시에 인류사를 ‘반영’한다.²⁶⁾ 다시 말해, 기술은 인류의 ‘구상(plan)’을 표출하기 위해서 개발한 ‘실행(practice)’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인류사의 주관세계와 객관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단순히 물적 존재의 생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류의 문화적 상징의 창출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기술은 인류의 단순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며 인류가 역사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학습해온 사회적이고 상징적인 행위의 궤적을 의미한다.²⁷⁾

성찰주의의 상징적 기술론이 상정하는 권력의 개념은 간주관적 요소로서의 기술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정체성과 신념체계 및 가치관 등의 형성에 작용하는 ‘구성적 권력’이다.²⁸⁾ 특히 IT를 통해서 발휘하는 구조적 권력은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문화상품에 묻어서 행사된다. 여기서 IT는 문화상품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징을 생산, 확산, 공유케 하는 매개체이다. 실제로,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IT를 기반으로 생산된 문화적 상징들은, 산업화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고도의 복합적인 방식으로 문화상품에 통합된다. 최근에 등장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에 있어서 첨단 IT를 활용한 특수효과가 널리 도입되고 있으며, 생산된 문화상품의 유통 과정도 IT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미 IT는 상징적 지식이 생산과 유통 및 소비되는 세계정치의 권력 메커니즘에 매우 깊숙이 침투하였다.²⁹⁾

한편, 상징적 기술론이 상정하는 세계질서의 변화상은 IT를 매개로 하여 각종 관념들이 국

24) R. Palan, “Technological Metaphors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p.21-2

25)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26) James Der Derian, “Virtuous War/Virtual Theory,” *International Affairs*, 76(4), (2000), p.786; James Der Derian, *Virtuous War: Mapping the Military-Industrial-Media-Entertainment Network*, (Boulder, CO: Westview Press, 2001), ch.7

27) R. Palan, “Technological Metaphors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p.14

28) 김상배,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서울: 오름, 2001), pp.305-30

29) Aida A. Hozic, “Uncle Sam goes to Siliwood: Of Landscapes, Spielberg and Hegemon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6(3), (September, 1999), pp.289-312

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확산되는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국민국가의 단위를 넘어서는 정체성의 출현 과정이다. 이러한 관념 확산과 정체성 중첩으로서의 세계화는 인터넷과 각종 IT기기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상상의 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³⁰⁾ 실제로 사이버공간의 등장과정에서 생성되는 문화정체성은 국민국가 단위의 국민정체성(nationality)을 넘어서 인터넷상의 노드(node)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네트워크 정체성으로서의 노드정체성(nodality)³¹⁾이다. 이렇게 영토성과 사이버공간 또는 국가단위와 개인단위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중중적 정체성의 출현 가능성은 성찰주의자들로 하여금 주류 국제정치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기본단위체에 대한 전제, 즉 국민국가 단위로 설정되었던 ‘상상의 경계’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상징적 기술론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권력론 및 변화의 전망은 관념형성의 구조(ideational structure)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역으로 물질적 구조(material structure)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³²⁾ 어떤 형태로건 상징적 기술론이 상정하고 있는 관념형성의 구조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물질적 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정치의 상징세계 또는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물질적 인센티브는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러한 과정에서 기술은 어떠한 구성적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상징적 기술론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이다. 결국 이익이나 제도 및 관념의 세 변수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삼자간의 관계를 밝히는 구성적 기술론의 모색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V.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

1. 이익-제도-관념의 분석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성찰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전통은 각 이론

30) P.E. Steinberg and S.D. McDowell, “Global Communication and the Post-Statism of Cyberspace.”

31) 이러한 노드정체성은 집단의 정체성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기저에 깔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사용자 정체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 사이버공간에서 서로를 인식하는 것은 실명이나 국적이 아니라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PINs(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s)나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es) 및 사용자 ID 등을 통해서 발현되는 네트워크의 정체성이다.; Timothy W. Luke, “From Nationality to Nodality: How the Politics of Being Digital Transforms Globalization,”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ember, 3-6, 1998)

32) 상징적 기술론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스미스(Steve Smith)가 웬트(Alexander Wendt)의 구성주의에 대해서 행한 비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자본주의나 가부장제 등과 같이 마르크스주의에서 설정하고 있는 물질적 이익(material interests)을 반영하는 구조에 비교할 때 웬트가 상정하는 구조는 관념으로만 구성되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light) 구조라고 한다. Steve Smith, “Reflectivist and Constructiv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Theory,”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245

진영이 안고 있는 인식론적 편향으로 인해서 기술변수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위상을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IT의 발달에 의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세계정치, 즉 정보세계정치에 대한 온전한 전망을 제시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각 이론진영에서 상정하고 있는 기술론이 나름대로의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현실주의, 자유주의, 성찰주의 국제정치이론 진영이 각각 주목하고 있는 이익과 제도 및 관념의 세 차원에서 파악된 구도적 기술론, 환경적 기술론, 상징적 기술론은 정보세계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일면 타당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세계정치의 현실이 이익-제도-관념의 세 차원 중에서 어느 한 차원이 아닌, 세 차원 모두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전개된다는 점에 있다. 이 글의 바탕이 되는 국제정치이론적 관심도 바로 이러한 세 차원의 논의들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합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화학적으로 융합된 체계적인 분석틀로서 엮어낼 것이냐의 문제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이익-제도-관념의 세 변수가 어떠한 구도에서 상호관계를 맺고 세계정치의 현실에서 발현되어 가며, 이러한 구도 내에서 기술변수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을 모색하는 작업은 향후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논지 전개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기존의 연구로부터 분석틀을 추출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국제정치이론과 비교정치경제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이론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우선, 이 글에서 채택한 분석틀의 골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 그람시주의 국제정치이론가인 콕스(Robert Cox)의 연구로부터 일차적인 도움을 얻었다.³³⁾ 콕스는 권력의 세 가지 범주인 물질적 능력(material capabilities), 관념(ideas), 제도(institutions) 등이 상호 작동하는 속에서 형성되는 역사적 구조를 사회세력(social forces), 국가형태(forms of state), 세계질서(world orders)라는 세 가지 분석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다. 콕스의 분석틀이 주는 유용성은 물질적 능력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세력을 형성하고, 국가형태의 변화를 초래하며, 세계질서의 구도를 바꾸는 세계정치 변화의 구성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콕스는 물질적 능력과 관념 및 제도의 상호작용 속에서 세계정치의 객관적, 주관적, 제도적 측면이 접합되면서 세계정치의 패권구조와 이에 대한 대항구조의 상호 작용하는 동학을 탐구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이익-제도-관념의 분석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본질에 대한 신제도주의 비교정치경제학에서의 논쟁으로부터도 많은 도움을 얻었다. 비교정치경제학에서 신제도주의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이익의 변수에 주목하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과 제도의 변수에 주목하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³⁴⁾ 다시 말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상정하는 제도는 이익

33) R.W.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이러한 콕스의 그람시주의 분석틀을 수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Mark E. Rupert, "Producing Hegemony: State/Society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4, (1990), pp.427-56; Mark E. Rupert, *Producing Hegemony: The Politics of Mass Production and American Global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34)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역사적 제도주의 진영간에 벌어진 신제도주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간 전략적 선택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성되고 변화하며, 때로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반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상정하는 제도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그것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행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나름대로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를 가지는 존재이다.

이 글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의 신제도주의적 논의가 초점으로 삼았던 이익과 제도의 두 변수를 넘어서 관념이라고 하는 제3의 변수를 적극적으로 이론화하는 새로운 신제도주의적 분석틀이다. 이러한 새로운 분석틀은 관념 변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이익과 제도 변수의 삼자 간에 벌어지는 구성적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이러한 분석틀의 이름을 붙이자면 ‘구성적 제도주의(constructive institutionalism)³⁵⁾’라고 할 수 있다. 구성적 제도주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비물질적(non-material) 제도’에 주목한다. 이러한 비물질적 제도로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관념이나 관행 등을 들 수 있다. 구성적 제도주의는 물질적 이익을 반영하여 어떻게 이러한 제도가 형성되고 변화하며, 또한 이렇게 생성된 제도가 어떻게 이익과 정체성을 재구성하는지를 탐구한다. 다시 말해, 구성적 제도주의의 주요 관심사는 제도가 단순한 물질세계의 현상적 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행위자의 선택에 선행해서 존재하는 완전히 선형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이익 대 제도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펼쳐져온 신제도주의의 논쟁의 난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다.³⁶⁾

이 글은 이러한 구성적 상호작용에 대한 비교정치경제학적 논의를 국제정치이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콕스가 상정하고 있는 권력의 세 가지 범주와 세계정치의 세 가지 분석수준에 대한 논의와 연결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러한 구성적 제도주의의 분석틀은 이익-제도-관념의 상호구성 메커니즘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이론 분야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이 펼치고 있는 논의와는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자가 드러내는 이론적 입장의 차이는 이익-제도-관념의 구도 안에 기술변수의 위상을 구성적으로 설정하려는 이하의 논의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이 글은 기술사회학과 기술경제학 및 국제정치학 내에서 기술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구성적 또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련의 연구들에도 특별히 주목하였다.

참조. Kathleen Thel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1-32

35) 구성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단초를 보여주는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Anna Leander, “A Nebbish Presence: Undervalued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o IPE,” in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New York: Routledge, 2000). 한편, 구성적 제도주의의 시각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사례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세계표준의 정치경제: 미·일 컴퓨터 산업경쟁의 이론적 이해,”『국가전략』8(2), (2002) pp.5-27; 김상배, “지역 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42(2), (2002), pp.111-30;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한국정치학회보』37(1), (2003), pp.409-29

36) 리앤더는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구성적 제도주의의 입장은 표명하고 있다. Anna Leander, “A Nebbish Presence,” pp.185-6.

2. 구성적 기술론의 모색

구성적 기술론의 모색을 위한 작업은 정태적 도구나 종립적 환경의 의미를 넘어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동태적인 ‘물질적 능력’으로서 기술의 개념을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개별적인 실체로서의 개념이 아닌 세계질서 변화의 동력을 일정 정도 내재적으로 배태하고 있는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술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의 개념과 관련하여 마르크스(Karl Marx)가 상정하고 있는 생산력 개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에 의하면, 역사의 변화과정은 사회의 경제적 토대를 형성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긴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 생산력이란 생산과정에 결합된 요소들로서 특정 시대에 가용한 노동, 도구, 기술 등을 의미한다. 기술진보 등에 의해 생산수단이 발전하면 기존의 생산관계의 적실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새로운 생산능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약하는 굴레가 된다. 따라서 새로운 생산력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관계가 변형되는 사회변화의 과정이 발생한다. 여기서 생산력은 일차적으로 물질적 능력을 지칭하는 개념이지만 궁극적으로 생산관계와 더 나아가 생산양식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배태하고 있다.³⁷⁾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IT의 발달은 생산력에 해당하는 물질적 능력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소위 IT혁명은 생산적·파괴적·의사소통적 잠재력으로서의 물질적 능력의 비약적 증대를 뜻한다. 이러한 IT의 발달에 조응해서 마르크스가 설정하고 있는 생산관계에 해당하는 영역도 변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보화시대의 물질적 능력으로서의 기술변화는 사회세력간의 역관계를 변화시키는 ‘배분적 변화(distributional changes)³⁸⁾’를 야기한다. 이러한 배분적 변화의 와중에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합한 사회세력이 새로이 등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세력이 도태되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력-생산관계에서 도출되는, 기술에 대한 동태적 논리구도가 갖는 한계는 여전히 기술의 질적인 성격에 대한 논의가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술에 대한 구성적 논의를 펼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으로만 파악된 물질적 능력의 개념을 넘어서 기술이라고 하는 블랙박스를 열고 그 안에 존재하는 기술의 내적 속성을 밝혀야 한다. 기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기술에 친화적인 환경을 요구하는 기술체계 자체의 내적 논리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기술사회학과 기술경제학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기술체계는 특정한 그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기술체계에 적합한 환경을 기술체계 그 자체의 속성 안에 배태하고 있다고 한다.³⁹⁾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과 환경의 조응관계를 어떻게

37) 마르크스의 기술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John E. Elliott, “Marx and Schumpeter on Capitalism’s Creative Destruction: A Comparative Restate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XCV(1), (August, 1980), pp.45-68; John B. Foster, “Theories of Capitalist Transformation: Critical Notes on the Comparison of Marx and Schumpeter(Comment on Elliot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XCVIII(2), (May, 1983), pp.327-36

38) R.J. Deibert,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p.32

39) 예를 들어, 키첼트(Herbert Kitschelt)는 ‘기술체계의 결합도(degree of coupling)’과 ‘인과적 상호작용의 복잡도(complexity of causal interactions)’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체계가 그에 적합한 관리구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밝혀낼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이 그 개발과 활용의 과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문화적 환경과 맺는 두 가지 차원의 적합성(fi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기술체계가 제도환경과 갖는 적합성의 문제이다. 특정 산업부문의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기업·산업구조나 기술혁신체제 및 산업패러다임 등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논의들은 모두 이러한 기술-제도의 적합성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물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조응관계나 네오마르크스주의 전통의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⁴⁰⁾에서 말하는 축적체계(the regime of accumulation)와 조절양식(the mode of regulation)의 조응관계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기술체계가 관념체계와 갖는 적합성의 문제이다. 사실 기술과 관념의 상호관계는 기술과 제도의 경우처럼 가시적이지도 않고 엄밀한 인과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술체계는 특정한 ‘사회적 인식론(social epistemology)’에 대해서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⁴¹⁾ 다시 말해, 어떤 기술환경에서는 특정한 상징적 행위들이 좀 더 자연스럽고 타당하게 인식되고, 이에 따라 특정한 사회적 인식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더욱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적합성의 논의가 실질적으로 구성적 기술론의 모색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체계를 한축으로 하고 제도환경과 관념체계를 다른 한 축으로 성립되는 양자간의 인과적 또는 구성적 관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⁴²⁾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이렇게 기술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그 자체의 속성으로부터 기술에 배태되어 있는 제도적·관념적 적합성을 탐색하는 식의 논리구성 자체가 자칫 기술결정론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종류의 기술결정론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기술이 도입되는 역사사회적 맥락, 즉 기술의 사회적 배태성(embeddedness)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 또는 관념이 기술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 대한 논의가 기술사회학의 전통 내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⁴³⁾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이 기술

조(governance structure)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Herbert Kitschelt, “Industrial Governance Structures, Innovation Strategies and the Case of Japan: Sectoral or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4). (1991), pp.453-93

40) Robert Boyer, *The Regulation School: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41) R.J. Deibert,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p.35

42) 예를 들어 선도부문(leading sectors)과 산업패러다임(industrial paradigms)의 인과적 적합성을 탐구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Sangbae Kim and Jeffrey A. Hart, “Technological Capacity as Fitness: An Evolutionary Model of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William R. Thompson (ed.),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1), pp.285-314.

43)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Donald Mackenzie and Judy Wajcman (eds.),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85); Wiebe E. Bijker, Thomas P. Hughes, and Trevor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A: MIT Press, 1997)

결정론의 경향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 역시 사회적 요소가 기술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논의, 즉 사회결정론(social determinism)이라고 하는 정반대의 몇에 걸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나친 사회적 구성론의 입장을 택하게 되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독자적 영향을 간과하게 되고 기술변수를 다시 블랙박스 안으로 숨겨버리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⁴⁴⁾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구성적 기술론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성적 기술론을 모색하는 작업의 핵심은,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구성된 기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물질적 능력과 제도적 환경 및 문화적 요인 등과 상호 관계를 맺는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이익-제도-관념이라는 구도 안에 구성적 요소로서 기술변수를 설정하는 과제의 관건은, 이익에 기반을 둔 물질적 동력으로의 기술, 특정한 제도와 관념에 친화성을 갖는 기술, 사회적 반영물로서의 기술에 대한 삼차원적 개념화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진화론에서 유추된 기술적 합력(technological fitness)⁴⁵⁾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문제의 실마리를 풀고자 한다.

기술적 합력이란 기술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에 적합한 제도 및 문화적 조건을 조정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기술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적응이라는 진화론적 유추를 바탕으로 한다.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적 상황은 자연에서 각각의 종(種)들이 자연환경의 변화와 별이는 상호작용과 흡사하다. 다시 말해, 자연환경의 변화가 적자(適者)를 선별해내듯이 새로운 기술변화는 선별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는 특정한 사회세력과 제도 및 관념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적자를 선별해 낸다. 이러한 진화론적 비유는 국제 정치이론의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국제정치에서 종(種)인 국가는 기술적 합력을 발휘함으로써 생존을 모색한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국가는 기능과 형태를 바꾸어 적응을 시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더 적합한 다른 행위자에 의해서 대체되어 도태할 수도 있다.⁴⁶⁾

이러한 기술적 합력의 개념에서 인과성의 확실성을 기본적으로 기술로부터 제도·관념으로 그어지지만, 이것이 반드시 기술결정론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합력의 개념은 새로운 기술환경에 적응하는 행위자의 동태적 능력에 주목함으로써 상대적 자율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등장한 기술체계의 속성과 기존 제도환경의 적합성 여부는 정태적이지만, 일차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비록 이차적일 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동태적인 적응의 과정이다. 특히 기술적 합력의 개념은 제도조정

44) 국제정치이론에서 성찰주의나 구성주의가 상정하는 기술론을 추론해 보면, 기술사회학에서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관념결정론' 내지는 '사회결정론'의 성향을 가질 가능성 이 있다. 예를 들어 물질력은 관념의 맥락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웬트의 주장은 그러한 경향을 갖는다. 왜냐하면 웬트의 이론구성을 추론해 보면, 만약에 기술과 같은 물질력이 행위자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기술을 둘러싸고 공유된 사회적 관념 때문이지 물질력 자체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45) S. Kim and J. A. Hart, "Technological Capacity as Fitness."

46) S. Kim and J. A. Hart, "Technological Capacity as Fitness"; R.J. Deibert,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pp.31-32, p.36

(institutional adjustment)⁴⁷⁾의 과정을 통해서 기술체계에 적합한 효과적인 제도환경을 구축하는 의도적인 노력에 주목한다.

더군다나 자연적 진화론의 경우와는 달리, 기술과 사회의 진화론적 구도에서는 역으로 종(種)이 환경을 선택하는 과정, 즉 기술환경이라는 ‘선택 메커니즘(selection mechanism)’ 자체가 사회적으로 선정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 글은 기술적합력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기술창출력(technological genesis)⁴⁸⁾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창출력은, 기술적합력의 개념에서 기술과 제도 사이에 그어지는 인과적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하여, 기존의 ‘이해관계’와 ‘제도적 조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술의 미래를 구성해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미래에 대한 ‘관념’을 제시하는 능력, 즉 기술담론(technological discourse)의 생성 능력이다. 이러한 기술담론은 현실세계의 ‘이해관계’와 ‘제도’의 제약을 바탕으로 하여 출현하지만, 또한 역으로 그 관념이 제시한 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재를 구성해 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요컨대, 기술담론의 형태로 드러난 기술창출력은 현실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간주관적으로 구성된 제도의 비물질적, 즉 관념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

3. 정보세계정치론의 모색

구성적 기술론의 시작에서 볼 때, IT의 발달에 의해서 변화하는 정보세계정치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우선 구성적 요소로서의 기술변화가 정보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IT를 둘러싼 국제체제의 패권구조 변동에서 발견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주의 전통 내에서도 기술변화와 구조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동태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는 국제정치경제학적 연구들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길핀(Robert Gilpin)⁴⁹⁾은 국가간, 산업부문간에 발생하는 불균등한 기술발전이 권력분포의 상대적 변화의 핵심요소라고 파악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선도부문(leading sector)의 세계정치적 의미에 주목한다. 특히 모델스키(George Modelska)와 톰슨(William Thompson)⁵⁰⁾은 보다 더 명시적으로 선도부문의 부침과 세계패권의 흥망을 연결하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선도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국제체제에서의 패권국이 되는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선도부문과 패권변화에 대한 논의는, 기술과 세계정치 변화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를 기본단위로 한 패권변화 또는 권력배분의 상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신현실주의적 구조변화에만 주목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47) S. Kim and J. A. Hart, “Technological Capacity as Fitness.”

48) 김상배, “세계표준경쟁의 정치경제,” p.128

49) R.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Robert Gilpin, *The Challenge of Global Capitalism: The World Economy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50) G. Modelska and W.R. Thompson,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William R. Thompson, “Long Wav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lative Decli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2), (Spring, 1990), pp.201-33

이러한 점에서 더욱 중요한 변화는 국가 행위자에 의해서 추구되는 도구적인 목표로서의 IT가 야기하는 역설적 변화에서 발견해야 할 것이다. 즉 대상으로서의 IT가 주체로서의 국가의 기능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물질적 동력으로서 작동한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해 I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권력의 핵심적 요소로서 등장하게 되면서 국가 행위자의 ‘이익’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물질적 자원으로부터 IT와 같은 지식자원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국가인식의 변화는 세계정치에서 권력의 원천과 소재가 변화하는 권리이동(powershift)⁵¹⁾의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진행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목표와 국가인식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기능적 성격을 근대 이래의 ‘부강(富強)국가’로부터 ‘지식국가’로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정치의 권리게임이 ‘위세게임(prestige game)’과 ‘국부게임(wealth game)’으로부터 ‘지식게임(knowledge game)’으로 변화한다는 인식이나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s)와 무역국가(trading states)를 넘어서는 버추얼 국가(virtual states)의 등장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⁵²⁾

그런데 지식자원을 둘러싼 국제적 경쟁의 가속화는 국가의 성격 변화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아닌 새로운 행위자들이 세계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는 효과를 낳는다. 실제로 IT의 발달이 창출하는 탈집중의 제도환경에서 국가는 가장 효율적인 행위자, 즉 적자(適者)는 아니다. 오히려 IT가 창출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술적합력’을 갖고 정보와 지식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기에 적합한 행위자는 국가보다는 다국적 기업이나 비정부기구 등과 같은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들이다. 다시 말해, IT는 디지털경제의 영역에서 초국적인 생산과 금융의 네트워크를 수립한 다국적 기업들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세계시민사회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보다 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IT의 발달에 따른 주요 행위자들의 부침 현상은 세계정치에서 새로운 갈등의 유형을 창출할 가능성을 낳고 있다. 한편, 국가의 약화와 비국가 행위자의 부상이라는 현상은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IT분야의 산업정책이나 통신분야의 규제정책 등에 있어서 국가가 중심이 된 집중형 거버넌스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었다. 요컨대, 새로운 IT환경 하에서 국가는 안과 밖의 새로운 경쟁자들과 적자생존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³⁾

그렇다고 새로운 기술환경에서 국가가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대체되어 완전히 도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보세계정치는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득권이 작동하는 정치적 공간에서 진행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⁵⁴⁾ 이러한 공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51) Alvin Toffler, *Power Shift* (New York: Bantam Books, 1990); David Rothkopf, “Cyberpolitik: The Changing Nature of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 1998), pp.325-59

52) Shumpei Kumon and Akihiko Tanaka, “From Prestige to Wealth to Knowledge,” in Takashi Inoguchi and Daniel I. Okimot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2,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p.64-82; Shumpei Kumon, “Can Japan Succeed in Chigyo-Ka” Glocom Working Paper, (1998) <http://www.glooom.ac.jp/proj/kumon/paper1999/990000c.html> (검색일 2003년 3월 10일);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1999)

53)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 (2001, 겨울), pp.359-76

54) R.O. Keohane and J.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p.84

있는 국가가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호의존의 추세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여전히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IT가 영토국가에 대해서 도전의 동력을 제공하면서 ‘버추얼국가(virtual state)’가 등장하는 형태로 국가가 소멸할 가능성이 예견되기도 하지만, ‘현실국가(real state)’로서의 영토국가가 담당했던 전통적 기능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 주권국가가 차츰 ‘실제화(realization)’되는 과정에 접어들었으며, 그 역할과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조짐들이 보인다.⁵⁵⁾ 실제로 ‘기술창출력’을 가지고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환경 자체의 선택에 관여하는 국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결국 IT가 야기하는 세계정치의 변화는 국가의 소멸보다는 부단한 ‘제도조정’의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정도로 국가의 형태가 변화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IT를 매개로 하여 국가의 안과 밖에서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의 출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새로운 IT환경에 대한 기술적합력과 기술창출력의 길항작용 속에서 세계정치가 변화하는 현상은 이상에서 언급한 세계정치의 ‘사실상(de facto)’의 구조’가 변화하는 측면이외에도 소위 세계정치의 ‘법률상(de jure)’의 구조’에 해당하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 또는 국제제도의 변화에서도 발견된다.⁵⁶⁾ 우선, 탈집중 네트워크를 속성으로 하는 IT,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에 적합한 제도환경의 등장을 요구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통신레짐이나 지적재산권레짐 또는 서비스무역레짐 등에서 나타나는 구조변화의 사례들은 IT환경의 도래에 적응하는 국제레짐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존에는 정부간(inter-governmental) 레짐이었던 이러한 분야에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참여하면서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의 가능성이 예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 행위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간 국제기구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기술창출력에 의지한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최근 들어 새로운 갈등의 여지를 안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의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최근 들어 전통적인 정부간 기구로서의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새로운 성격의 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인터넷 거버넌스 분야에서 행사해온 권한에 도전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가형태와 국제레짐 차원의 변화는 정치적 단위체 자체의 상호구성원리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권위의 아키텍처, 즉 세계질서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야기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IT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던 국제체제의

55)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적 관리조직인 ICANN에서의 이러한 국가의 반격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aniel W. Drezner,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Internet: Bringing the State Back I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forthcoming).

56) 기술변화와 국제레짐의 변화를 탐구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Peter F. Cowhey,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s: The Political Roots of Regimes for High Technolog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 (Spring 1990), pp.169-99; Mark W. Zacher and Brent A. Sutton, *Governing Global Networks: International Regimes fo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William J. Drake, “The Rise and Decline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 in Christopher T. Marsden, (ed.), *Regulating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2000), pp.124-77

기본구조에 대한 관념, 즉 근대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질서에 대한 관념도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IT가 변화시키고 있는 근대 국제정치의 구성원리 중의 하나가 바로 주권(sovignty)의 원칙이다. 실제로 정보화시대를 맞아 근대적 국가주권의 관념은 다양한 영역에서 침식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IT분야의 지식주권(knowledge sovereignty)이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사례일 것이다. 여하튼 새롭게 출현하는 탈근대 세계 질서의 관념은 다층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다면적 제도체(multiperspectival institutional forms)’ 또는 ‘신중세주의(neomedievalism)’의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크다.⁵⁷⁾ 로즈나우(James Rosenau)가 묘사하고 있듯이, 분화(分化, fragmentation)와 통합(統合, integration)의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분합(分合, fragmegration)’의 세계정치에 대한 관념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⁵⁸⁾

VI. 맷음말

IT의 발달로 인한 세계정치의 변화와 연속성에 대한 국제정치학계의 논의는 아직도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기술과 세계정치의 변화를 판별할 기준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어설플게 벌이는 ‘논쟁 아닌 논쟁’은 공론(空論)만을 양산해 낼 우려마저 있다. 실제로 여태까지 국내외의 학계에서 시론(試論)으로서 제시되었던 대부분의 논의들은 각자가 준거로 삼고 있는 국제정치이론 진영의 인식론적 편향에 갇혀서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주장을 교환해온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식으로 진행되는 논쟁은 승자와 패자를 가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글은 IT와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플랫폼 중의 하나로서 이 글이 주목한 것은 국제정치이론이 설정하고 있는 기술변수의 위상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세계정치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었다.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진영은 각기 이론적 전통이 안고 있는 인식론적 편향으로 인해서 기술변수의 위상을 적절히 설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정치 변화의 전체 구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과편적 전망만을 제시한 감이 없지 않다. 현실주의 진영은 기술을 지나치게 도구적인 변수로 파악함으로써 기술변화를 국제정치의 본질적인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 진영은 환경적 요소로서 기술변수가 세계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탐구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에, 기술을 세계정치 변

57) Stephen J. Kobrin, “Back to the Future: Neomedievalism and the Postmodern Digital World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 1998), pp.361-86; John G. Ruggie,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 (Winter 1993), 139-74

58) J.N. Rosenau, *Distant Proximities*.

화의 외부에 존재하는 변수로 상정함으로써 기술변화와 세계정치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끝으로 성찰주의 진영은 기술을 ‘물질의 세계’와 ‘상징의 세계’에 걸쳐서 존재하는 간주간적 요소로 설정함으로써 기술이 관념의 세계정치에 던지는 의미를 강조한 반면에, 물질적 구조를 통해서 기술이 행사하는 권력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정치이론과 비교정치경제학의 이론전통으로부터 추출된 이익-제도-관념의 분석틀을 통해 세계정치 변화의 구도 안에 기술을 내재적 변수로 설정함으로써, 기술변화와 세계정치 변화의 구성적 과정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새로운 기술환경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물질적 능력과 제도적 환경 및 문화적 관념 등과 상호관계를 맺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기술사회학에서의 기술과 제도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의 진화론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유추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과 위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계정치 행위자가 등장하는 선택과 적응의 과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IT의 발달이 정보화시대의 패권구조와 국제래짐 및 세계질서의 변화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도 검토하였다.

구성적 기술론의 모색을 통해서 정보세계정치에 대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시도한 이 글은 ‘보편 국제정치이론’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학계는 물론이고 해외학계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좀 더 ‘현실적인’ 논의의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국적 현실과 이론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특수 국제정치이론’으로의 치환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혹시라도 보편이론이라는 명목 하에 한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경험적 현실에서 추상된 이론을 한국의 현실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대국 차원에서는 ‘객관적 현실’로서 인식되는 정보세계정치일지라도 한국이 감지하는 ‘주관적 현실’로서의 정보세계정치와는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는 중심적인 문제이지만 보편이론의 틀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거나 경시될 가능성도 있다.⁵⁹⁾

요컨대, 향후 정보세계정치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작업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보세계정치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보세계정치에 대한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길은 추상적인 이론의 정교화 작업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론적·경험적 지평을 계속 넓혀나가는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제시된 구성적 기술론과 정보세계정치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증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례들이 앞서 언급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함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9)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전재성·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42(4), (2002), pp.7-26

참고 문헌

- 김상배,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2001), pp.305-30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 (2001, 겨울), pp.359-76
- 김상배, “세계표준의 정치경제: 미·일 컴퓨터 산업경쟁의 이론적 이해,” 『국가전략』 8(2), (2002) pp.5-27
- 김상배,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2002), pp.111-30
-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한글민족주의: 아래아한글살리기운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37(1), (2003), pp.409-29
- 전재성·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42(4), (2002), pp.7-26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 Ashley, Richard K., “Three Modes of Economism,”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7, (June, 1983), pp.463-96
- Bijker, Wiebe E., Thomas P. Hughes, and Trevor Pinch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Technological Systems: New Directions in the Sociology and History of Technology* (Cambridge, MA: MIT Press, 1997)
- Boyer, Robert, *The Regulation School: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 Cowhey, Peter 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s: The Political Roots of Regimes for High Technolog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 (Spring 1990), pp.169-99
- Cox, Robert W.,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10(2), (Summer, 1981), pp.126-55
- Deibert, Ronald J., “Hyper-Realities of World Politics: Theorizing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in Evan H. Potter, (ed.), *Cyber-Diplomacy: Managing Foreign Poli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2), pp.27-47
- Deibert, Ronald J., *Parchment, Printing, and Hypermedia: Communication in World Order Transform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Der Derian, James, “Virtuous War/Virtual Theory,” *International Affairs*, 76(4), (2000), pp.771-88
- Der Derian, James, *Virtuous War: Mapping the Military-Industrial-Media- Entertainment Network*, (Boulder, CO: Westview Press, 2001)

- Drake, William J., "The Rise and Decline of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Regime," in Christopher T. Marsden, (ed.), *Regulating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2000), pp.124-77
- Drezner, Daniel W.,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Internet: Bringing the State Back In," *Political Science Quarterly*, (forthcoming).
- Elliott, John E., "Marx and Schumpeter on Capitalism's Creative Destruction: A Comparative Restate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XCV(1), (August, 1980), pp.45-68
- Foster, John B., "Theories of Capitalist Transformation: Critical Notes on the Comparison of Marx and Schumpeter(Comment on Elliot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XCVIII(2), (May, 1983), pp.327-36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London: Penguin, 1992)
- Gilpin, Robert,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Gilpin, Robert, *The Challenge of Global Capitalism: The World Economy in the 21st Centu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Hart, Jeffrey A., and Sangbae Kim,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in Jose V. Ciprut (ed.), *Of Fears and Foes: Security and Insecurity in an Evolving Global Political Economy* (Westport, Conn.: Praeger, 2000), pp.35-58
- Hart, Jeffrey A., *Rival Capitali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Western Europ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Herrera, Geoffrey L., "The Politics of Bandwidth: International Politics Implications of a Global Digital Information Network,"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28, (2002), pp.93-122
- Herrera, Geoffrey L., *The Mobility of Power: Technology, Diffusion and International System Change*,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95)
- Hozic, Aida A., "Uncle Sam goes to Siliwood: Of Landscapes, Spielberg and Hegemony,"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6(3), (September, 1999), pp.289-312
- Kennedy, Paul,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1993)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1977)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Jr., "Power and Interdependence in the Information Age," *Foreign Affairs*, 77(5), (1998), pp.81-94
- Kim, Sangbae, and Jeffrey A. Hart, "Technological Capacity as Fitness: An Evolutionary Model of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William R. Thompson (ed.),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1), pp.285-314.
- Kitschelt, Herbert, "Industrial Governance Structures, Innovation Strategies and the Case of Japan:

- Sectoral or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4). (1991), pp.453-93
- Kobrin, Stephen J., "Back to the Future: Neomedievalism and the Postmodern Digital World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 1998), pp.361-86
- Kumon, Shumpei, "Can Japan Succeed in Chigyo-Ka" Glocom Working Paper, (1998) <http://www.glocom.ac.jp/proj/kumon/paper/1998/980000c.html> (검색일 2003년 3월 10일)
- Kumon, Shumpei, and Akihiko Tanaka, "From Prestige to Wealth to Knowledge," in Takashi Inoguchi and Daniel I. Okimoto,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2,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p.64-82
- Leander. Anna, "A Nebbish Presence: Undervalued Contributions of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to IPE," in Ronen Palan, (ed.), *Global Political Economy: Contemporary Theories* (New York: Routledge, 2000), pp.184-96
- Luke, Timothy W., "From Nationality to Nodality: How the Politics of Being Digital Transforms Globalization,"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tember, 3-6, 1998)
- Mackenzie, Donald, and Judy Wajcman (eds.),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1985)
- Modelska, George, and William R. Thompson, *Leading Sectors and World Powers: The Coevolution of Global Politics and Economic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6)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 Nye, Joseph S.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 Palan, Ronen, "Technological Metaphors and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Michael Talalay, Chris Farrands, and Roger Tooze, (eds.), *Technology, Culture and Competitiveness: Change and the World Political Economy* (London: Routledge, 1997), pp.13-26
- Rosecrance, Richard,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1999)
- Rosenau, James N.,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1995), pp.13-43
- Rosenau, James N.,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 Rosenau, James N., *Turbulence in World Politics: A Theory of Change and Continu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Rothkopf, David, "Cyberpolitik: The Changing Nature of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 1998), pp.325-59

- Ruggie, John G.,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 (Winter 1993), pp.139-74
- Rupert, Mark E., "Producing Hegemony: State/Society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4, (1990), pp.427-56
- Rupert, Mark E., *Producing Hegemony: The Politics of Mass Production and American Global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Skolnikoff, Eugene B., *The Elusive Transformation: Science, Technology,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Smith, Steve, "Reflectivist and Constructiv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Theory,"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224-49
- Steinberg, Philip E., and Stephen D. McDowell, "Global Communication and the Post-Statism of Cyberspace: A Spatial Constructivist View,"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0(2), (May 2003), pp.196-221
- Strange, Susan, *States and Markets*, (London and New York: Pinter, 1988)
- Strange, Susan,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Talalay, Michael, Chris Farrands, and Roger Tooze, (eds.), *Technology, Culture and Competitiveness: Change and the World Political Economy* (London: Routledge, 1997)
- Thelen, Kathleen, and Sven Steinm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Politics," in Sven Steinmo, Kathleen Thelen and Frank Longstreth (eds.),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1-32
- Thompson, William R., "Long Wav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Relative Decline," *International Organization*, 44(2), (Spring, 1990), pp.201-33
- Toffler, Alvin, *Power Shift* (New York: Bantam Books, 1990)
- Tyson, Laura D., *Who's Bashing Whom?: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1979)
- Youngs, Gillian, "Culture and the Technological Imperative: Missing Dimensions," in Michael Talalay, Chris Farrands, and Roger Tooze, (eds.), *Technology, Culture and Competitiveness: Change and the World Political Economy* (London: Routledge, 1997), pp.27-40
- Zacher, Mark W., and Brent A. Sutton, *Governing Global Networks: International Regimes for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Searching for a Constitutive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nd Global Politics in the Information Age

Kim, Sangbae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mpacts on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politics in tremendous ways, technology factors remain under-theorized in the litera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is paper explores why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have kept silence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and changes of global politics, and argues that epistemological bias of the existing camps in International Relations was one of the major reasons of theoretical silence. This paper attempts to conceptualize the understandings of technology and its theoretical status, adopted by the three major school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realism, liberalism, and reflectivism, and names them the instrumental, environmental, and symbolic understandings respectively. This paper criticizes their epistemological bias as well as their vision of world order change, on which their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re based. In particular, this paper relies on the framework of interests, institutions, and ideas, and explores the interactive mechanism between technological changes and the changes of global politics in the information age.

투 고 일 : 2003년 10월 30일
심 사 일 : 2003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 2003년 12월 15일